

김옥균의 최후*

김흥수**

〈차 례〉

1. 머리말
2. 자객 파견의 배경
3. 김옥균 중국행의 목적
4. 김옥균과 삼화주의
5. 맺음말

[국문초록]

이홍장(李鴻章)의 양자 이경방(李經方)의 초청으로 중국에 간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흥종 우에 의해 암살되었다. 김옥균의 유품 중에 몇 건의 문서가 있었다. 대원군에게 보낸 편지, 개혁구상을 보여주는 간략한 메모, 내정개혁을 함께할 대상으로 보이는 조선 관료의 명단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 문서를 단서로 암살 직전 김옥균의 개혁구상과 상해로 간 목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개화 세력이 괴멸된 상태에서 '적의 적은 동지'라는 관점에서 대원군과 동맹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재기를 꿈꾸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김옥균은 이홍장을 만나 대원군과 동맹하여 민영준(閔泳駿) 등 민씨 척족을 제거하고 개명적 인사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홍장의 동의와 지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비극적이지만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의 청일전쟁 개전 구실로 이용되고, 그의 정치개혁 구상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실현되었다.

한편, 김옥균이 이경방의 초청에 응한 것도 그의 동아시아 구상에 공명했기 때문이다. 이경방은 청일이 제후하여 조선을 개혁하고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역설하였다. 조선을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갑신정변 이래 김옥균의 일관된 대외전략이었다. 이른바 '삼화주의(三和主義)'의 실질적 함의는 청일이 보장하는 조선의 중립화였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김옥균, 대원군, 이홍장, 이경방, 중립국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

1. 머리말

김옥균 암살사건은 역사학은 물론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환되어왔다.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암살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청·일본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3국 공동의 모살이라는 것이 통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¹⁾

이 통설에 대해 김영작은 조선 정부나 청 정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청국의 이경방이 김옥균을 초청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김옥균의 암살을 초래하긴 하였으나 이경방의 초청이 암살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적어도 이경방·이홍장이 암살범들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경청할 만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 정부와의 관련성도 부정하면서 김옥균 암살은 이일직 등이 조선 정부에 아부하여 입신출세할 목적으로 김옥균에 여비를 지원할 것을 구실로 접근하여 흥중우를 상하이에 동반시켜 자행한 범행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관계 당국 중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일찍 김옥균 등에 대한 암살계획을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범행을 방치·방조하였으며, 더욱이 중요한 일본인 공범인 재야의 거물 오미와 초베(大三輪長兵衛)를 은닉하였다고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²⁾ 조선 정부의 관련성 여부는 엄밀히 검토할 주제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 하는 김옥균 중국행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김옥균이 이홍장을 만나 ‘삼화주의’와 ‘조선 중립론’을 역설하고 정치

1)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琴秉洞, 『金玉均と日本：その滯日の軌跡』, 綠蔭書房, 1991; 권혁수, 「김옥균 암살사건과 청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1, 1997(『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박은숙,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북스, 2011.

권혁수는 3국이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종의 국제적인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였고, 3국의 합작품이라고 하면서도 “일본 내에서 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청의 김옥균 초청은 단순 살해가 아니라 다른 집점을 모색하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2) 김영작, 『金玉均 暗殺事件과 韓·清·日 三國-既存 學說에 대한 批判的 再檢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1995.

적 재기를 의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이를 알 수 있는 직접적 자료가 없으므로 간접 자료로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중국행 목적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서는 존재한다. 김옥균이 유류품을 남겼기 때문이다.⁴⁾ 당시 상하이주재 일본 총영사대리 오코시 나리노리(大越成徳)가 김옥균의 도항 목적과 청국 관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습한 것이 현재 남아 있다.⁵⁾ 일찍이 이 자료의 소재는 최서면에 의해 알려졌지만,⁶⁾ 본격적 분석은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원군과 비밀리에 통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옥균 친필편지를 놓치고 말았다.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김옥균이 대원군 등 국내 인사와 통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원세개가 없애려 했기 때문이다. 김옥균 암살 소식이 조선에 알려진 이틀 후인 3월 31일에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조선 조정의 신하 다수가 김옥균과 통신했고 대원군도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발각되면 반드시 大獄이 발생할 것이므로 江蘇海關道 聶緝縲에게 신칙하여 비밀리에 김옥균의 짐을 검사해서 모든 문서를 불살라 많은 생명을 보전하길 바랍니다”⁷⁾라는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받은 상하이 道臺 섭집규는 김옥균의 증복 와다 노부지로(和田延次郎)⁸⁾가 김옥균의 짐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발했고 증복은 홍종우에 대한 원한이 깊어 서류를 없앴을 것이라⁹⁾고 일종의 허위보고를 했다. 이미 오코시 총영사대리가 가져간 뒤라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원세개가 이홍장을 통해 서류를 불태우라고 요청한 것은 김옥균과 통신한 조선의 관리를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오코시 영사가 추정한

3) 조재근, 「한말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계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쓰았다』, 푸른역사, 2005); 권혁수, 「근대조선의 아시아협력 구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4)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JACAR Ref.B03030202200 36/51~43/51)에 남아 있다.

5)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 JACAR Ref.B03030202200 50/51.

6) 崔書勉, 『金玉均 最後の上海 메모』, 『월간중앙』 105, 1976. 12; 『金玉均, 上海最後のメモ』, 『アジア公論』 69, 1978.

7) 『袁世凱全集』 3-590, 河南大學出版社, 2013.

8) 일반적으로 ‘와다 엔지로’로 읽지만, 당시 신문에서는 ‘와다 노부지로’로 읽었고, 김옥균도 그렇게 불렀다.

9) 『李鴻章全集』 24, 安徽教育出版社, 2008, 20~21쪽.

대로 후시 있을지도 모를 김옥균과 이홍장·이경방·원세개 등과 통신한 흔적을 없애려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암살 직전 김옥균이 남긴 자료를 실마리로 『李鴻章全集』, 『袁世凱全集』 등 중국 사료, 그리고 당시의 일본 신문¹⁰⁾ 등을 활용해서 김옥균 암살을 위해 조선 정부에서 자객을 파견하게 된 동기와 김옥균이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 끝에 상하이로 방문한 목적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옥균의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자객 파견의 배경

1) 대원군과 연계한 쿠데타 계획

주지하듯이 1894년 3월 28일 김옥균이 홍종우에 의해 암살되지만, 이를 사주하고 기획한 이는 이일직(李逸植)¹¹⁾이다. 그리고 이일직이 김옥균과 박영효 등 이른바 갑신역적을 암살하기 위해 1892년 4월경 일본으로 건너간 직접적 계기는 1891년의 대원군과 결탁한 김옥균의 쿠데타 음모와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이 쿠데타 음모가 김옥균 암살의 기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쿠데타 계획은 「대원군 음모에 관한 시말」¹²⁾이라는 제목으로 『伊藤博文文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막은 대체로 이러하다.

10) 본 논문 작성에 『琴乘洞文庫 소제 김옥균 관계 자료』(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인용한 신문자료는 모두 이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1) 1894년 10월 28일(갑오 9월 30일) 李逸植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편지(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伊藤博文關係文書』 8, 塙書房, 1980, 399~401쪽)에 따르면, 1892년 도일하기 이전에 3년 동안 遊歷을 명분으로 김옥균 무리의 거동을 탐색했다 한다. 이 편지에서 이일직은 일본군의 청공격에 자신이 향도가 되겠다고 한 것을 보면 奸智에 능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2) 『大院君陰謀ニ關スル始末』(伊藤博文文書研究會 監修, 『伊藤博文文書』 9, ゆまに書房, 2007). 이 문서는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下(伊藤博文編 金子堅太郎等校訂, 秘書類纂刊行會, 1936), 7~17쪽과 『古筠 金玉均正傳』(古筠金玉均正傳編纂委員會, 高麗書籍, 1984), 371~377쪽에 활자화되어 있다. 이 문건은 보고자의 이름도 없어 미스터리이지만, 당시 총리대신인 이토에게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다른 자료와 정합적이라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1887년경 박영효는 대원군이 훗날 조선에서 일을 일으킬 뜻이 있음을 살피고 일본인 오가와 미노루(小川實)¹³⁾를 매개로 대원군에게 서한을 보내 국사를 도모할 것을 타진하자 대원군이 중국식 명함을 건네주었다 한다. 이어서 1891년 2월 신화폐 주조를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典圜局 幫辦 안경수가 도쿄에 오자¹⁴⁾, 3월 그가 귀국할 때 대원군 앞으로 편지를 부탁하였다 한다.¹⁵⁾ 편지 내용은 첫째, 대원군이 국왕에 상주하여 온건한 방법으로 국정 개량, 둘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씨를 芟除하여 국정을 개혁할 것, 셋째, 둘 다 불가능하면 수단을 다해 일본에 도항하라는 것이었다. 귀국한 안경수는 이 편지를 오가와에게 주고 오가와가 대원군에게 올리자, 대원군은 “온 조정을 경동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박영효에게 통지하라고 오가와에게 얘기했다 한다.

한편 김옥균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도야마 미쓰루(頭山滿)·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오이 켄타로(大井憲太郎) 등과 모의하여 일을 일으키려 도모하고 있었는데 안경수가 화폐주조의 일로 일본에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겨 密謀를 얘기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자금 마련을 의뢰했다 한다. 안경수는 처음에 동의했지만, 중간에 위험을 느껴 귀국한 다음 민 씨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김옥균의 책략은 무산되었다 한다. 이런 상태에서 온 조정을 경동할 일을 하라는 대원군의 말이 전해지자 김옥균과 박영효는 대원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명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오가와를 통해 대원군에게 보낸다. 이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사본이 현재 일본 사노(佐野)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⁶⁾ 김옥균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유배 때부터 懇親한

13) 1887년 친군전영 製粉교사로 고용되어 주로 무기 구매를 증개한 것으로 보인다(『內各司(關草)』 1, 親軍前營文移, 丁亥五月二十日;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14) 안경수는 1891년 2월 3일부터 몇 차례 造幣局理事官 하세가와 타메하루(長谷川爲治)와 신화폐 발행 문제를 논의하였다(金容九 編,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總書』 19, 亞細亞文化社, 1995, 111~118 쪽). 조선 정부에 고용된 오가와 미노루는 이 당시 통역을 담당하였다.

15)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에서 수학 중이던 1888년 2월 박영효는 유명한 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를 고종에게 올리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대원군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16) 『大院君閣下ニ奉ル書』라는 제목으로 한문 필사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합철되어 있다. 편지 첫머리가 “朴泳孝金玉均等 謹上書于大院君大老閣下”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제목의 ‘閣下’는

관계를 유지한 수나가 하지메(須永元)가 기증한 것이다. 이 편지에선 먼저 “우리나라 금일의 상태는 간신과 권신이 사사롭게 일을 처리하고 생민이 도탄에 빠져 멸망이 임박”¹⁷⁾한 것 같다고 진단하고 “저번에 진술한 상소의 원본을 올리니 한번 펼쳐본 다음 국왕에게 進達할”¹⁸⁾ 것을 요청하고, “합하께서 금일 비록 천하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하나 살갓을 파고들고 뼈를 바르는 매우 위급한 상태이니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祖宗列聖을 위해 신하의 본분을 다하라”¹⁹⁾는 내용이다. 대원군은 이 편지를 원세개(袁世凱)에게도 보여 주었다 한다.

대원군이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박·김의 서한에 대해 오히려 자신은 연로하고 다른 야망이 없으니 조선의 정치를 모두 박·김 두 사람에게 맡기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891년 6월경 대원군은 오가와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명맥은 매우 위급하고, 이를 구할 자는 박·김 두 사람을 제하고 달리 바랄 수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김이 권력을 장악할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2명이 첫째, 일본 병사 2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인천에 올 것, 둘째, 이것이 불가능하면 일본에서 병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꾸밀 것, 셋째, 이것도 일본 정부의 방해를 받아 할 수 없으면 2명이 조선에서 거사하려는 음모를 신문에 게재할 것,²⁰⁾ 넷째, 만약 이것도 불가능하면 국왕에게 2명이 죄 없이 역적의 이름을 입은 이유를 힐문하고 그 결심이 굳건함을 보일 것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정부는 동요할 것이고, 그 기회를 타서 북양함대의 파견을 요청, 諸閔을 포박하여 함대에 교부하고 조선의 정치를 김·박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대원군의 구상은 1891년 8월 주일공사 김가진²¹⁾ 일행이 도쿄에 도착

‘閣下’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7) “我國今日情狀 有如奸權用私 生民塗炭 國之覆亡 迫於時日”

18) “前所陳封事原本 因呈閣下 乞一展覽 因伏望進達至尊”

19) “閣下今日 雖不以天下事爲己任 此係逼肌剔骨 水火之急 閣下亦安忍凝然袖手 不爲我祖宗列聖盡閣下爲臣之分哉”

20) 고종은 『時事新報』, 『東京日日新聞』, 『大阪朝日新聞』, 『國會』 등 일본 신문과 『申報』, 『京報』, 『循環日報』, 『時報』 등 중국 신문을 열람하고, 4, 5종의 영미신문 중 중요한 내용은 역관이 번역한 것을 열람하였다. 그중 일본 신문은 조선과 관계있는 기사가 많아 한층 주의하여 열람했다 한다(『時事新報』, 1892년 3월 20일).

했을 때 함께 온 인천우편국장 요시다 우지부미(吉田氏文)에 의해 김옥균에게 전해진다.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된 요시다가 공명심에서 오가와와 輕躁가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김옥균에게 주장하면서 이 계획을 알렸다 한다. 실제로 오가와와는 일종의 이중 첩자로 대원군의 계획을 민씨 척족에게 밀고했다.²²⁾ 요시다도 뒤에 러시아 署理공사 드미트리엠프스키(德密特, Dmitrevsky)에게 “대원군이 김옥균을 통해 개진당 지도자²³⁾에게 일본이 조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 당 지도자가 거절했다”²⁴⁾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그도 이중 첩자나 다름없었다. 9월 4일 김옥균은 요시다를 동반하고 박영효 집에 가서 함께 대원군의 거사에 가담하자고 권유한다. 그러나 박영효는 “대원군은 조야의 명망이 있고 그 당도 적지 않다. 진실로 성사시키려 한다면 우리를 필요로 할 리가 없다. 하물며 연로하지만 일찍이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豪氣가 소멸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필시 허언이다. 輕信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단연코 거절했다. 박영효가 찬성하지 않자 주일 공사 김가진은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다. 김가진은 대원군의 거사를 찬성하지만, 대원군의 네 가지 책략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김가진의 대안은 공사의 직분으로 거병 계획을 국왕에게 밀고하면 조정이 동요하여 대원군의 책략이 이루어지고 민씨를 텐진에 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원군의 密謀는 이미 국내에 알려져 김가진은 본국 정부로부터 변란이 있을 것 같으니 미국 군함 5, 6척의 파견을 水師提督 벨냅(George Belknap)에게 요청하라는

21) 김가진은 6월 19일 주일공사(정식 명칭은 일본주재 辦事大臣)로 임명되고 10월 23일 복명하였다(『승정원일기』, 1891년 5월 13일 및 9월 21일). 김가진의 공식 임무는 오스트리아와 조약을 체결하는 건이었지만, 신화폐 주조와 교환서 설치를 위해 오미와 초베(大三輪長兵衛)를 용병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김가진은 9월에 오사카부회 의장이자 제58국립은행 은행장인 오미와에게 신식화폐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는 임시 약정서를 체결했다(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大三輪長兵衛文書』 60-4).

22) 당시 일본 신문은 김옥균 암살을 위한 자객 파견이 오가와 미노루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까지 보도하였다. 『中央新聞』 1892년 7월 7일; 『國民新聞』 1892년 7월 8일.

23) 당시 遞信大臣이었던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요시다 우지부미도 고토가 파견한 듯하다.

24) 박재만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선인, 2013, 158쪽.

전훈을 받은 상태였다. 김가진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벨납은 미리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함대를 파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최근에 2, 3척이 중국해에서 인천에 회항하니 잠시 정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가진이 공사의 신분임에도 대원군의 계획에 동조한 것은 근원적인 쿠데타만이 조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귀국 후인 11월 14일 김가진이 드미트리옙스키와 나눈 대화에서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강압적인 쿠데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붉은 피를 흘려야 한다. 김옥균은 올 것이고, 오게 해야 하며, 와야만 한다. 그게 좋을 것이다. 이곳의 도둑놈들을 몰아내야 한다. (중략) “전하 주위엔 좋은 사람이 없다”고 김이 말했다. “모두 사기꾼이고 돈만 훔치려 할 뿐이다.” (중략)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건 헛수고이며, 중요 직책을 맡아 양심적인 동조자를 찾아내서 조금씩 사람을 모아 권부 상층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국가 통치에서의 무질서와 배임행위를 점차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조속하고 근원적인 쿠데타만이 통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김은 말했다. 여기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없고 그가 꾸릴 만한 무리도 없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외국으로 달아났거나, 핍박을 받고 있거나 벽촌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야 한다.²⁵⁾

김가진이 위와 같은 주장을 피력한 데에는 도쿄에서 김옥균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주일 청국전권공사 李經方의 충고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가진의 임무 중에는 이경방과 협의해서 북양대신 李鴻章이 조선왕에게 요구한 ‘另約三端’을 취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경방과 협의하니 “내정이 정비되지 않아 자주 중국을 번거롭게 한다. 진실로 독립국을 바라면 먼저 내정을 정비하라”고 두말없이 거절했다 한다. 김가진은 내정의 정비 없이는 독립국이 될 수 없고 중국의 속국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25) 박재만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선인, 2013, 163~164쪽.

빠져리게 느끼고 귀국했을 것이다.

한편 김옥균은 김가진의 책략을 듣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후쿠자와는 김가진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책략이 행해질 수 없다고 답했다 한다. 그리고 고토 쇼지로 체신대신을 5, 6회 방문하여 동의를 구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 한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김옥균은 박영효에게 함께 텐진에 가서 이홍장과 의논할 것을 권했다. 이로써 김옥균은 박영효와 결별하나²⁶⁾ 김옥균의 중국행 결심이 이때 싹이 텄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옥균은 이홍장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군함을 빌려주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것이 거절되자 1891년 10월 27일에 몰래 도쿄를 출발, 고베(神戸)에 가서 기선을 빌리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단했다 한다.²⁷⁾ 또 김옥균은 이경방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홍장에게 전하려 하였다. 아래 자료는 1892년 3월 11일(음력 2월 13일) 이홍장이 이경방에게 보낸 서한인데 암살 직전 그의 중국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김옥균은 반복무상하고 또 큰 뜻이 있어 결코 귀국을 허용할 수 없다. 조선의 군신이 이를 매우 꺼리고 두려워한다. 중국에서 쓸려고 해도, 애석하지만 쓸데가 없다. 필렌도르프나 하트(Robert Hart)처럼 능히 조종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다. 또 조선왕은 근년 나와 소식이 오래 두절되어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매우 심하다. 만약에 김옥균이 중국에 머무는 것을 알면 더욱 의심하고 시기할 것이라서 전혀

26) 이것 외에 김옥균의 생활 태도도 절교의 한 원인이었다. 1892년 1월 8일 『朝野新聞』, 『東京新報』, 『國民新聞』 등에 실린 '박영효, 김옥균과 절교하다'는 제목 아래 "박 씨와 뜻을 같이한 정난교 이규완 등은 김 씨가 일본 도래 이후 품행을 닦지 않고, 거동이 문란하여 사체는 쌓여 산을 이루면서도 몸에는 美服을 장식하고 사치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에서 미루어보면, 前途 대망을 품고 와신상담하는 조선 왕국의 명사로 볼 수 없다"라고 통렬히 분개했다 한다. 이후 박영효는 국왕, 민씨 척족, 대원군에게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하였지만, 이것도 민씨 척족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27) 『時事新報』 1894년 3월 30일. 기선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후 김옥균은 인천에 잠입하려 한 듯하다. 1891년 11월 28일 가지야마 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외무성에서 김옥균의 거동을 내밀히 정탐하도록 효고현에 의뢰하였는데, 효고현지사는 "김옥균은 상황에 따라 인천까지 가고자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내일(29일) 조선에서 입항하는 쓰루가마루(敦賀丸)를 기다려 육로로 귀경할 예정이라고 했다"라고 보고했다(『小笠原島ヨリ北海道へ移動以後ニ於ケル動靜』, JACAR Ref.B03030202100 32/36).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일본은 현재 조선을 병탄할 뜻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²⁸⁾

이 서한은 주일 청국공사²⁹⁾이면서 이홍장의 양자인 이경방이 1892년 2월 22일자(음력 1월 24일)로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현재로선 이경방의 서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경방이 김옥균과 관련하여 무엇을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답신을 통해 유추는 가능하다. 아마 이경방은 이홍장에게 김옥균의 귀국이나 중국 재류를 요청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조선의 군신이 김옥균의 귀국을 반대하기에 들어줄 수 없고, 중국 재류도 그를 통제하면서 중국의 조선 정책에 활용할 수 없기에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한을 통해 김옥균과 박영효를 활용하여 정변을 일으키려는 대원군의 구상도 이홍장이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조선을 병탄할 뜻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할 뜻이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김옥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이다. 김옥균의 암살 직전에 이홍장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면, 이경방을 통해 김옥균을 중국에 초청한 것이, 정말로 그를 살해하기 위해 유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를 활용하려 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조선 정부의 대응

대원군이 이홍장의 힘을 빌리고 김옥균과 박영효와 연계하여 쿠데타를 도

28) “金玉均反復無常 又有大志 斷不容其回國 韓君臣深忌畏之 欲爲華用 惜無可用之處 不比穆麟德尙有赫德能操縱也 且韓王近年與我音問久絕 疑畏甚深 若知金玉均留華 更加猜疑 殊非妥策 日本現無吞韓之志 故彼不能見用”(『李鴻章全集』 35, 安徽教育出版社, 2008, 324쪽).

29) 이경방은 1891년 2월부터 1892년 9월까지 특명전권공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外務省編纂,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 附表2, 原書房, 1966, 55쪽). 런던 주재 일등서기관을 역임한 이경방은 청일의 교제를 돈독히 하려는 이홍장의 의중에 따라 1890년 9월 9일 임명되었다 한다(1890년 9월 11일 荒川已次 在天津부영사가 伊藤博文에게 보낸 서한(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会編, 『伊藤博文關係文書』 1, 塙書房, 1973, 104~105쪽).

모한 것은 당시 고종과 민씨 척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이전의 쿠데타 음모와 달리 이번의 계획에는 이홍장이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홍장은 이 음모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청의 속방화 정책에서 벗어나려 끈질기게 시도한 고종의 입장에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가와 와 안경수의 밀고를 통해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된 고종은 앞에서 본 것처럼 김가진을 통해 미국 군함 5, 6척의 파견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서리 공사 드미트리엠프스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드미트리엠프스키는 1891년 10월 25일(러시아력 10월 13일) 일기에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통역관 바실리가 국왕을 뵙고 돌아왔다. (중략) 국왕은 대원군이 일본에 있는 김옥균 등의 정치적 탈주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원군이 원세개를 통해 이홍장에게 편지를 썼음을 알고 있다고 하셨다. 국왕은 중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어 중국 편인 대원군과 일본 숭배자인 김옥균을 조선의 통치 수반으로 내세우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텐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도 하셨다. 원세개를 통해 대원군의 편지를 받은 이홍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봐달라는 것이었다.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대원군의 편을 들라고 자문을 했었다. 그런 다음 제물포에 러시아 군함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물어보셨다.³⁰⁾

11월 4일에는 壯衛使 한규설을 보내 “대원군이 김옥균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일본 부대와 같이 제물포로 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라고 청했다”라는 소문과 “김옥균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기선을 임대했으며, 심지어 기선을 샀다”라는 소문의 진위를 일본주재 러시아공사를 통해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베이징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이홍장과 원세개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다.³¹⁾

한편 제주도 어채금지 협상을 위해 도쿄에 파견된 판무사 르 장드르(Charles W. Le Gendre, 李善得)에게도 전보를 보내 김옥균이 수백 명의 소

30) 박재만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선인, 2013, 157쪽.

31) 위의 책, 160~161쪽.

시(壯士)를 데리고 귀국한다는 계획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 문의하도록 하였다.³²⁾ 르 장드르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김옥균의 동태를 직접 감시하였고 외무독관 민종묵에게 김옥균에 대한 미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냈다.³³⁾

1891년 12월 6일 가지야마 테이스케(梶山鼎介) 변리공사가 고종을 알현했을 때는 여러 대신과 친밀히 교제하라고 특별히 칙유를 내렸는데, 가지야마는 이것이 조선의 여러 대신과 긴밀히 소통하여 김옥균의 來韓에 대해 대비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³⁴⁾ 1892년 2월 내무독관 겸 선해청 당상 민영준과 밀담한 가지야마는, 민영준이 대원군 등의 거동에 자못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근래 세상에는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소시를 데리고 渡韓하고, 또 대원군은 거사하려 한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충분히 믿을 수 없다. 가령 김옥균 등이 도한해도 대사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두려운 일은 조선의 내란을 틈타 병력을 파견한 러시아나 청의 간섭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보고하였다. 3월 하순에는 “아이들까지 뭔가 사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민영준 등도 이와 같은 형세를 알고 있다. 사변이 일어나는 그 날이 최후의 때라고 각오하고 있지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 곤란하다”라고 안경수와 밀담한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³⁵⁾ 당시 세도가로 불린 민영준조차 대원군의 거동에 두려워하면서도 내란에 직면한 당시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리무중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세개도 “척신 민영준이 최근에 총애를 입어 諸閥 중에서 그의 권세가 으뜸이고, 왕의 낭비는 무절제하다. 각 영의 군대는 규율이 없고, 각도 수령은 오로지 착취와 이침을 능사로 삼는다. 서북 각 읍에는 민란이 자주 일어나고 경기 근처엔 도적이 만연하다. 궁궐에는 소인들로 붐비고 날로 서양을 칭찬하면서 부강을 空談하는 것이 연목구어 같다”³⁶⁾고 당시의 조선 상황을 진단하였다.

32) 『中央新聞』 1892년 7월 7일; 『福陵新報』 1892년 7월 12일.

33) 『러젠드르(Charles W. Le Gendre) 문서 목록 및 해제』, 『해의사료총서 7권 미국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34) 『梶山弁理公使赴任之件』, JACAR Ref.B16080154500.

35) 『朝鮮国内情困難ノ趣閔泳駿並安壽兩氏密話ノ件』, JACAR Ref.A04010006300.

36) 『袁世凱全集』 2-899, 河南大學出版社, 2013.

이런 상태에서 조선 정부는 내정개혁보다 당장의 화근인 김옥균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밀파하고 급기야 대원군까지 폭살하려 기도하였다. 당시 대원군저에 화약이 폭발한 사건에 대해 대원군 자작설, 閔黨 주도설, 원세개 사주설 등 여러 설이 분분했으나³⁷⁾ 1892년 6월 21일 가지야마 공사가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 書記生을 운현궁에 보내 위문 겸 탐문을 했는데 그 전말은 대체로 이러하다. 6월 17일 오전 2시쯤 응접실 바닥 아래 온돌에서 굉음이 진동하여 마침 숙직한 집사 등이 이 소리에 깨서 옥외로 나오니 화약 연기가 굴뚝에서 분출했다. 그 출처를 조사하니 응접실 및 침실 두 곳의 온돌 아궁이에 화약이 장치되어 있었다. 응접실 아궁이의 화약은 폭발했지만, 화력이 온돌을 통해 굴뚝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온돌을 파괴함에 그치고 폭발력이 실내에 미치지지는 않았다. 또 대원군이 자고 있던 침실 아래 아궁이에 설치한 한 개는 導火가 소멸하여 화기가 藥函에 도달하지 않아 폭발에 이르지 않았다.³⁸⁾ 대원군은 이 사건에 대해 포도청에서 범인을 검거하지도 않고 국왕 및 閔家로부터 위문도 없는 점을 근거로 사건의 주모자를 閔族으로 여겼다.³⁹⁾

3. 김옥균 중국행의 목적

김옥균이 이일직이나 홍종우의 꾀에 빠져 상하이에 간 것이 아니라 이홍장의 양자 이경방의 초청으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하이에 도착한 1894년 3월 27일 저녁에 윤치호를 만난 김옥균은 이홍장 이들의 초청으로 청국에 오게 되었으며 후쿠자와 고토가 비용에 쓰라며 각각 1,000불씩 주었고, 이세직(이일직의 별명-필자)이 일행의 여행비용으로 쓰라고 600불을 주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홍종우는 이세직이 예금을 한 중국 은행인

37) 『東京新報』 1891년 7월 13일.

38) 『大院君邸内火藥爆發ノ件』, JACAR Ref.A04010006700

39) 『大院君邸内火藥爆發ノ件』, JACAR Ref.A04010006600

小東門 밖의 天豐寶號에서 5,000불을 찾기 위해 김옥균과 함께 중국에 오게 되었으며, 5,000불 가운데 2,000불은 자신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홍종우를 통해 이세직에게 보내라고 했다면서 홍종우를 동반한 이유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燕湖(燕湖의 필사 오류-필자)에 있는 이경방의 다음 전갈이 있을 때까지 상하이에 머물 생각이라고 말했다.⁴⁰⁾

김옥균은 이홍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경방의 주일 전권공사 시절에 그를 자주 방문하여懇親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옥균과 이경방은 둘 다 양자라는 공통점이 동병상련을 느끼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김옥균이 이경방을 자주 방문한 사실에 대해 당시 일본의 외무차관이었던 하야시 타다스(林董)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 망명객 김옥균은 일본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점점 이홍장에게 접근하여 일을 도모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永田町の 청국공사관을 방문하여 끝내 이경방을 매개로 이홍장에게 글을 보낸 것은 이경방이 스스로 나에게 말했다. 그 후 이경방 공사가 당시의 외무대신 에노모토(榎本武揚) 자작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이홍장은 직접 김에게 회답하지 않고 공사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으며, 또 부기하여 그는 작은 재주가 있어 때마침 殺身(살신성인)하기에 족하다고 했다 한다.⁴¹⁾

또 하야시 타다스는 회고록에서 김옥균이 1894년 2월 6일(음력 1월 1일) 청 공사관에 가서 축하하고 귀로에 자신의 관사를 방문하여 “당시 귀성 중인 이경방으로부터 상해에서 면회하고자 하여 곧 도항하려 한다”라고 밝히자, 하야시는 청 정부가 김옥균의 신체를 구류하거나 한국에 인도할지도 모른다고 이를 만류하였지만, 대화 과정에서 하야시는 김옥균이 이경방에게 도모할 것이 있고, 이경방도 또한 김옥균의 계획에 타서 스스로 도모할 바가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회고했다.⁴²⁾

40)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2』, 1894년 3월 27일[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41) 林董, 『後は昔の記』, 時事新報社, 1910, 204~205쪽. 하야시의 이 회고는 앞에서 살펴본, 이경방 앞으로 보낸 1892년 3월 11일(음력 2월 13일)자 이홍장의 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林董, 위의 책, 205~206쪽.

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김옥균이 이경방을 통해 이홍장을 만나려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경방은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만나 함께 텐진으로 가서 이홍장을 만나려 한 듯하다. 당시 이경방은 亡母의 유해를 매장하기 위해 고향 우후(蕪湖)에 귀성 중이었는데, 이 매장의식이 끝나고 텐진으로 갈 예정이었다.⁴³⁾

그리고 김옥균의 유품인 수첩에 이홍장의 호 ‘少荃’, 이홍장이 받은 작위와 관직인 ‘一等肅毅伯爵’, ‘武英殿大學士’, ‘文華殿大學士’, ‘直隸總督’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홍장과의 대담을 염두에 둔 메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 慶親王(총리각국사무이문대신 奕劻), 禮親王(수석 軍機大臣 世鐸), 張之萬(군기대신), 福錕(體仁閣大學士), 張蔭桓(總理衙門 戶部左侍郎) 등 당시 청 조정의 실권자와 일본에서 興亞會 활동을 해서 김옥균이 익히 알고 있는 王韜, 갑신정변 때 군대를 이끌고 온 吳大澂, 대원군이 임오군란 후 保定府로 끌려갔을 때의 예부상서 徐桐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것들도 이홍장을 만났을 때 대화의 소재로 삼거나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기 위해 적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大院君’과 민씨를 의미하는 ‘閔’도 적혀 있는 것을⁴⁴⁾ 보면 이 둘은 당시 김옥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김옥균이 이홍장을 만나 무엇을 하려 했을까? 이를 밝혀줄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옥균은 이경방과 왕복한 서한을 일독 후 태워 버렸기 때문이다.⁴⁵⁾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김옥균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김옥균이 어리석었을까. 김옥균과 이경방과의 관계나 후술하듯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43) 이경방의 양모는 1892년 7월 3일 사거했다(『時事新報』 1892년 7월 22일). 텐진에서 100일간의 忌服을 마친 후 1893년 2월 11일 아라카와(荒川巳次) 재텐진 영사대리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3개월 동안 망모의 유해를 매장할 준비를 하고, 다시 텐진으로 와서 가을에 유해와 함께 귀향하여 겨울 중에 매장의식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의식을 집행한 다음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곳에 올 심산이다”라고 하였다(1893년 2월 15일 『本邦駐劄前任清國公使李經方卜談話ノ件在天津荒川領事代理ヨリ報告』, 『外交彙報』 제161호, JACAR Ref.B13080616500).

44)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 JACAR Ref.B03030202200 43/51.

45)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 JACAR Ref.B03030202200 30/51.

판단한다. 다행히 김옥균이 중국에 간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남아 있다. 김옥균의 유품 중 지갑 안에 있었던 3건의 문건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은 조선인 24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두 번째 것은 민영준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 것은 대원군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다. 첫 번째 문건은 필사한 것이고 뒤의 두 건은 김옥균 친필 그대로 남아 있다.

세 번째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小人의上書를 此의는 이圖書로 信印을 託 시우고 大監의 書一定 信印을 해보내시옵소서”⁴⁶⁾라고 적혀 있다. 현대어로 옮기면 “제가 상서할 때는 이 인장으로 신표로 삼으시고, 대감께서 하나의 신표를 만들어 보내십시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대감’은 대원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은 ‘대원위대감’으로도 불렸으며 무엇보다 『원세개 전집』에 김옥균이 대원군과 자주 통신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원세개가 이홍장에게 보고한 전보 중에, 1893년 5월 12일 “오이시 공사가 와서 동학이 봉기했으며 김옥균이 이하응과 때때로 통신했다고 최근에 들었다”⁴⁷⁾ 라거나 6월 5일에는 “혹은 김옥균과 이하응이 함께 동학 비적과 통모했다고 한다”⁴⁸⁾는 것을 통해 김옥균이 대원군과 자주 통신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1891년 쿠데타 음모가 별 효과가 없자 1893년의 동학 봉기를 계기로 이를 다시 추진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문건을 태우지 않은 이유도 김옥균이 대원군과 의기투합했음을 이홍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김옥균 암살 소식을 전해 들은 대원군은 통곡했다고 전해진다.⁴⁹⁾

두 번째 문건에는 “세도가 민영준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여 안팎으로 크게 인심을 잃었다. 다만 왕비의 총애를 받을 뿐이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과 어떻게 동맹해야 할지를 모른다”⁵⁰⁾라고 적혀 있다. 민영준에 대한 김옥균

46)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JACAR Ref.B03030202200 39/51.

47) 『袁世凱全集』3-319.

48) 『袁世凱全集』3-381.

49) 대원군이 통탄·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위패 앞에 꿇어앉아 오열을 그치지 않았다 한다(『讀賣新聞』1894년 4월 13일). 『二六新報』(4월 12일) 등 다른 신문들도 “閔家의 大喜悅 大원군의 통곡”이라고 대비시켜 보도하였다.

50) “世道則閔泳駿獨自爲之 大失人心於內外 但有寵於坤殿耳 所存方但財點 不知世上之如何同盟耳”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JACAR Ref.B03030202200 39/51).

의 평가는 당시의 일반적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3년상을 마친 민영환이 민영달·민영주와 힘을 합쳐 “지금 선혜청당상 겸 統衛使·經理使인 민영준은 권세가 상감보다 높고 부는 국가보다 웃돈다”⁵¹⁾라고 탄핵할 정도였다. 스키 무라 후카시(杉村濤) 영사도 “현금의 세도 민영준의 권세는 더욱 성하여 이와 拮抗할 자가 없다. 이것은 양 전하 특히 왕비 전하의 신용이 두터움에 기인한다. 그리고 민영준도 오로지 총애를 받으려 힘써 왕가의 供用은 일찍이 결여한 것이 없고, 명령에 따라 조달한다. 그런데 그는 뇌물을 탐함이 더욱 심해 백성의 신망이 점차 떠났다”⁵²⁾라고 김옥균과 거의 동일하게 지적하였다. 김옥균에게 민영준은 일국을 이끌 능력이 없을뿐더러, 특히 조선을 안정시킬 대외전략이 없는 점이 크게 불만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문건의 조선 관리 명단 24명은 김옥균과 서신교환 등 교류를 했거나 개혁을 함께할 동맹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은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의 관직이다. 김가진(외무협판), 김한중(중관),⁵³⁾ 박정양(내무독판), 안경수(우포장), 이범진,⁵⁴⁾ 이원궁(내무참의), 오세창(군국기무처 낭청), 신기선,⁵⁵⁾ 윤응렬,⁵⁶⁾ 이도재⁵⁷⁾ 등이다. 그런데 김윤식, 김홍집, 유길준 등 이른바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화파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⁵⁸⁾ 이 밖에 신진 인사로 이계필, 하정룡, 김치관이 포함되

51) 『閔氏族 爭權의 件』(1894년 2월 14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권[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52) 1893년 7월 1일 『朝鮮政府内部形勢ノ一斑杉村領事ヨリ内報』, 『外交彙報』 제343호(JACAR Ref. B13080617100).

53) 르 장드르네 일본에 있을 때 김옥균의 내통자로 궁궐에 적어도 2명이 있으며, 그중에 한 명은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라는 정담 결과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인 것 같다[『러렌드르(Charles W. Le Gendre) 문서 목록 및 해제』, 『해외사료총서 7권 미국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54) 이범진은 1894년 7월 23일(음력 6월 21일) 대원군 집권 이전에 승직되었기 때문에 집권 후에는 연병부사로 좌천되었다. 『승정원일기』 1894년 7월 4일.

55) 당시 유배 중이었는데 解配 이후 同知中樞院事로 임명되고 군국기무처 의원이 되었다(『고종실록』 1894년 8월 22일).

56) 윤응렬은 박영효가 귀국하여 내무대신이 된 12월 17일 경무사에 임명되었다(『고종실록』 1894년 11월 21일).

57) 당시 유배 중이었는데 解配 이후 공무협판으로 임명되고 군국기무처 의원이 되었다(『고종실록』 1894년 8월 22일).

어 있다. 이계필은 1883년 일본 유학, 1885년 미국 유학, 1892년 귀국한 후에는 박정양의 지원 아래 내무부·전운국의 주사를 역임한 인물이다.⁵⁹⁾ 하정룡과 김치관은 1889년 기기국에서 화약 제조를 위해 일본에 유학 보낸 이들이다.⁶⁰⁾ 이를 보면 김옥균은 갑신정변에 반대한 세력을 제외하고 비교적 다양한 인사를 포섭하려 한 것 같다.

이상의 세 가지 문건은 김옥균의 구상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원군과 힘을 합쳐 당시 세도가인 민영준을 제거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홍장이 이것에 동의하고 지원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암살 전인 1894년 2월 14일 신임 공사 오토리 케이스케(大島圭介)는 당시 대원군에게 조선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개혁을 실행할 권력이 있다고 보고, 대원군의 등장은 이홍장의 지휘에 따라 원세개가 이를 결행할 것이므로 암암리에 청국의 책략을 찬성하고 또 대원군의 환심을 사서 일이 성공하는 날 이익을 균점하는 것이 하나의 기발한 책략이라고 본국에 내밀히 제안할 정도였다.⁶¹⁾ 1894년 3월 30일 김옥균의 암살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벌써 어느 한 신문은 김옥균 상해행의 목적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옥균이 일본에 도망해온 후도 대원군과 비밀의 교통이 끊이지 않았으며 시기를 기다려 내외 상응해서 閔族 배제의 素懷를 이루려 꾀하던 차에 의외로 對韓政略이 변해서 이홍장은 이경방으로 하여금 內意를 김옥균에게 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주 도쿄에서 밀회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김 씨 상해행의 목적 여하를 말하면 이홍장의 내훈을 띤 이경방과 회합해서 한정 혁신의 기밀을

58)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갑오개혁의 주도 세력과 김옥균이 비밀리에 교류한 인물을 동일시하고, 심지어 김옥균의 자주적 개혁을 막기 위해 청일 양국이 공모하여 그를 죽인 것으로 인식했다(김종현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II-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선인, 2011, 201쪽). 김옥균이 온건개화파를 배제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 김옥균이 교류한 인물과 갑오개혁의 주도 세력을 연계해서 파악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59) 韓哲晄,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 李啓弼의 일본·미국 유학과 활동』, 『東國史學』 37, 2002.

60) 『內各司(關草)』 機器局來文 己丑二月二十六日[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61) 『陸奧宗光關係文書』 75-3; 『伊藤博文文書』 7, 7~12쪽; 伊藤博文編 金子堅太郎等校訂,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中, 秘書類纂刊行會, 1936, 267~270쪽.

상당하기 위해, 즉 시기에 따라서는 다시 한정에 들어가서 개화당의 大飛躍을 시도할 기초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이 씨가 김 씨를 초청한 主旨로 김 씨가 이에 응한 목적이다. 虎穴에 들어가지 않으면 虎子를 잡을 수 없다는 결심도 이것으로 과연 관명할 수 있다. 김 씨가 일부러 이름을 바꾸어 三和라 한 것도 은연중에 日淸韓 3국 화복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⁶²⁾

4. 김옥균과 삼화주의

김옥균은 상하이로 갈 때 일본 망명 시기에 사용한 이와타 슈사쿠(岩田周作)를 오사카에서는 이와타 산페이(岩田三平)로 고베에서는 이와타 산와(岩田三和)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청·일 삼국 간의 평화를 염원한 變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三和’는 1940년대 일본의 침략이 기승을 부릴 때 김옥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동아공영권 건설 선전에 이용되었다. 김옥균 연구가로 알려진 김진구는 1941년 잡지 『朝光』에 실은 「古筠先生の 一生」에서 김옥균 사상의 요체를 삼화주의로 명명하고, 이것은 대동아건설의 근본이념인 ‘興亞’ 사상의 선구라고 평하였다.⁶³⁾ 또 기쿠치 켄조(菊池謙讓)가 집필한 『金玉均傳』에서는 ‘고균 선생의 삼화주의’⁶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이 책의 편찬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갑신정변의 공모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는 김옥균이 “多年 후쿠자와 옹으로부터 받은 사상에 기초하여 이 무렵 『興亞之意見』이라는 한 편을 지어 일·한·청 3국이 제휴하여 구미 동점의 침략을 防退할 것을 논하고, 이를 가지고 지나에 가서 이 흥장을 설득하려 계획”했다고 회고했다.⁶⁵⁾ 그리고 김옥균이 이별할 때 이노우에 가쿠고로에게 “조선의 독립은 일본 유랑 10년간의 경과로 보니 당파가 세력을 다투고 사리사욕만을 꾀하는 모습으로 끝내 그 전망이 희박하다고는

62) 『二六新報』 1894년 3월 30일.

63)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金振九)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13, 2003, 98~99쪽.

64) 古筠記念會, 『金玉均傳』 上卷, 慶應出版社, 1944, 12~16쪽.

65)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編, 『井上角五郎先生傳』, 1943, 117쪽.

생각되지만, 일본이 국력을 실추시키지 않는 한에는 흥아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⁶⁶⁾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위의 증언은 의심스럽다. 『井上角五郎自記年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와 왕래했는데 선생(후쿠자와-필자) 및 고토(後藤) 백작의 동의를 얻어 支那에 가게 되었다. 전야에 나를 麴町區 有樂町 나의 주거를 방문하여 “지금 조선에는 동학당의 변란이 일어났다. 지나는 반드시 이것을 기회로 뭔가 할 것이다. 이때 내가 지나에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귀국의 여론을 奮起시키기에 족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생에게도 백작에게도 生別의 예를 했다. 군의 오랫동안 情誼에 대해서도 또한 생별의 예를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다.⁶⁷⁾

‘흥아’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고, 김옥균이 마치 일본의 여론을 분기시키기 위해 중국에 간 것처럼 청일전쟁과 관련해서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김옥균의 사상이나 죽음은 일본의 필요에 따라 대동아공영권 이론의 선구자나 청일전쟁의 도화선 등으로 변주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옥균의 중국행의 주목적은 대원군과 동맹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지원을 이홍장으로부터 얻어내어 조선을 개혁하는 데 있었다. 김옥균은 조선의 내정을 개혁해야 내정 문제를 구실로 청일 양국이 조선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터이다. 아울러 ‘삼화’로 변명한 데에는 김옥균 나름의 대외적 국가구상이 담겨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밝혀 줄 직접적 자료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옥균에게는 조선의 국가구상에 대한 일관된 신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추는 가능하다.

갑신정변 직전인 1884년 11월 3일 김옥균은 고종에게 “서양의 네덜란드 [荷蘭], 벨기에[白耳義], 스위스[瑞西] 등의 나라처럼 빨리 독립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⁶⁸⁾ 벨기에와 스위스는 당시 영세 중립국이었다. 임오군란 이후

66)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編, 위의 책, 118쪽.

67) 『井上角五郎自記年譜』(일본 게이오대학 후쿠자와 연구센터 소장) 二十九歲, 3~4쪽.

청의 종주권이 강화되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일본의 조선 정책도 중립국화였으므로⁶⁹⁾ 김옥균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국공법』을 근거로 중립국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만국공법』⁷⁰⁾ 제4권 제3장 제4절에 스위스와 벨기에의 ‘局外’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⁷¹⁾ 김옥균은 일찍이 ‘만국공법’을 언급한 사례가 있고⁷²⁾ 위의 건의에서도 ‘공법’ 운운한 것을 보면, 만국공법에 근거해서 조선의 중립국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 실패 후에는 조선의 존망이 동아의 안위와 관계된다고 하면서 이홍장에게 청 황제가 주도하고 서양 열강이 승인하는 조선의 중립국화를 제안하였다.⁷³⁾ 청이 맹주가 되어 구미 열강을 설득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면 조선의 후일 뿐만 아니라 청에도 得策이라는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영향력 증대와 영·러의 대립이라는 상황에 맞게 이론인 조선의 중립화 구상을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정달은 김옥균 등 초기개화파가 갑신정변 당시에는 ‘대국주의’를 지향하고 정변 실패 후에 ‘소국주의’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논했지만⁷⁴⁾, 이들은 애초부터 조선을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려 했지, 대국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다. 대국주의를 지향했다는 근거의 하나인 서재필의 회고, 즉 김옥균이 일본에 유학 온 서재필 등에게 “일본이

68) 『十一月九日金玉均氏來館談話要略』, 『伊藤博文文書』 3, 53~54쪽.

69) 1884년 10월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는 사람들에게 “나는 장차 조선을 국외중립의 一邦으로 되게 하려 한다. 무릇 조선을 스위스와 같이 벨기에와 같이 영구 국의 중립국으로 하려는 것은 이노우에 외무경이 자주 희망한 바”라고 하였다 한다(井上角五郎, 『漢城酒殘夢』, 春陽堂, 1891, 23쪽).

70) 미국 선교사이며 北京의 同文館 總教習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艮良)이 미국 법학자 휘튼(Henry Wheaton, 惠頓)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漢譯하여 同治 3년(1864)에 간행한 것이다.

71) “一千八百十五年間 英奧俄法普五大國立約 內有條款云 倘後諸國有交戰事 必准瑞士謹守局外 不准別國兵馬據其地 或過其疆比利斯亦與瑞士相似”. 울시(Woolsey)의 저작을 1877년 마틴이 한역한 『公法便覽』 권4 제1장 제1절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다. 『만국공법』은 개항 전에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공법편람』은 1882년 김윤식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陰晴史』, 169쪽).

72) 임오군란 직후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에서 “지금 만국공법을 보면 민주국과 군주국이 각각 다르고, 오직 군주국은 군권을 보호함으로써 생민을 보호한다(爾今萬國公法 民主君主各殊 唯君主之國 則保護君權 以保生民)”라고 하여 대원군이 군권을 제약한 것을 비판하였다(『朝野新聞』 1882년 9월 26일).

73) 『金玉均與李鴻章書』(『朝野申聞』 1886년 7월 13일).

74) 趙景達, 『朝鮮における大國主義と小國主意の相克-初期開化派の思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1985; 『朝鮮近代のナショナリズムと東アジア-初期開化派の萬國公法觀を中心に-』, 『中國：社會と文化』 4, 1989.

동방의 영국 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아세아의 프랑스를 만들어야 한다”⁷⁵⁾라고 얘기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격려의 말이 지 현실 정치가인 김옥균의 국가구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가사와라 유포 중에도 김옥균은 동아시아 정세를 예의주시하였다. 김옥균의 유배 생활 중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나가 하지메(須永元)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동아시아 대세는 오직 청과 일본이 관건을 서로 쥐고 있다. 태평과 소란은 모두 양국의 和隙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서양의 각국이 서로 왕래하면서 소통하는 것에 반해 그렇지 못한 동아시아 상황을 지적하였다.⁷⁶⁾ 이 편지는 일본인에게 보낸 것이어서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김옥균의 입장에서 조선 독립의 전제조건이 청일 관계의 안정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경방도 청일 제휴론자였다. 1891년 2월 주일 공사로 부임한 이경방은 당시 외무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를 예방하고 “이번 奉使의 취의는 청일의 교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동양의 국면을 保持함에 있다”고 피력했다 한다.⁷⁷⁾ 그리고 이경방은 청일이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의 중립화 구상을 가진 듯하다. 이홍장이 이경방에게 보낸 1891년 4월 1일(음력 2월 23일) 서한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토가 직접 와서 의논하고자 하는 건은 아마 조선 관계가 많을 것이다. (중략) 만약 일본을 끌어들여 함께 (조선을) 보호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능하다. 즉 한국을 局外之國(중립국-필자)으로 만들어 프랑스와 독일이 벨기에에 하는 것처럼 각국

75)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閔泰煖, 『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1947), 84~85쪽.

76) 이 편지 원본은 일본 사노시(佐野市)향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금병동 앞 책 982쪽에 전문이 탈초되어 있지만, 일부 오류가 보인다(밑줄 친 부분). 주요 부분을 탈초하면 다음과 같다. “今當歐米開化之風驟到東洋之時 西洋學問自是闕不得者 而游歷彼地躬親聞見 即又不得已者 然玉常有言 今東亞細亞大勢 惟清與日本互持關鍵 太平騷亂均係於此兩國之和隙 現又今天之下 具大國之體 而純然未開者 即清國 不問東西洋 將有大舉動大運用 即亦在乎清國而已 (중략) 若佛英普俄之錯落 有相關彼數國之處 其隣國之間往來交際 互通其事勢物態 試反以思我日清之交際 則何啻萬千不相當 此誠一東亞政略之不勉周到之致也”

77) 에노모토가 다케아키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1891년 2월 12일자 서한(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会, 『伊藤博文關係文書』 3, 塙書房, 1975, 181쪽).

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논의할 수 없다. 이토가 밀약을 체결하여 협력으로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막으려는 것 역시 누설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행해야 한다.⁷⁸⁾

이 서한은 주일 공사로 부임한 이경방의 일종의 복무계획에 대한 이홍장의 회답이다. 이경방은 청일의 제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일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조선의 중립국 구상을 제안한 것 같다. 조선의 중립국 구상이 이경방의 독자적 판단인지 그와 교류한 김옥균과 관련이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경방은 조선의 중립화 구상에서 김옥균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이홍장은 속방화 정책을 유지했지만, 이후 방곡사건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무엇보다 청의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열세임을 인식했을 때,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 한 이홍장으로서의 뉘그러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홍장의 조선 속방화 정책이 동요할 때 이경방의 초청으로 김옥균이 상하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암살되면서 김옥균의 구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개혁의 지체는 동학봉기로 이어졌고 청의 속방화 정책의 지속은 청일 개전의 구실로 이용되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김옥균이 남긴 유품을 실마리로 그가 중국에 간 목적을 중점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김옥균은 대원군에게 보낸 편지, 당시 세도가 민영준을 규탄하는 쪽지, 내정개혁을 함께할 대상으로 보이는 조선 관료의 명단 등 몇 건의 유품을 남겼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개화 세력이 괴멸된 상태에서

78) 『李鴻章全集』 35, 186쪽.

‘적의 적은 동지’라는 관점에서 대원군과 동맹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재기를 꿈꾸었다. 1891년 대원군은 김옥균·박영효와 연계하여 민씨 척족을 몰아내고 이들에게 정권을 넘기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하였다. 이 음모는 국왕 고종과 민씨 척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이듬해 이일직 등을 파견하여 김옥균 등 망명한 갑신 역적을 제거하려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암살 직전 김옥균이 이홍장을 만나려 한 것은 1891년의 계획을 재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옥균은 이홍장을 만나, 대원군과 동맹하여 민영준 등 민씨 척족을 제거하고 개명적 인사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홍장의 동의와 지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극적이지만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의 청일전쟁 개전 구실로 이용되고, 그의 정치 개혁 구상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타율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김옥균이 이경방의 초청에 응한 것은 그의 동아시아 구상에 공명했기 때문이다. 이경방은 청일이 제후하여 조선을 개혁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역설했다. 김옥균이 상하이 출발 전에 이와타 슈사쿠(岩田周作)에서 이와타 산와(岩田三和)로 이름을 바꾼 것도 단순히 3국의 평화라는 추상적 희망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청일이 보장하는 조선의 중립화를 추구하려는 염원으로 보인다. 조선을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갑신정변 이래 김옥균의 일관된 국가구상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 『金玉均謀殺並ニ兇行者洪鐘宇ニ関スル件』 JACAR Ref.B03030202200.
- 『大院君邸内火薬爆発ノ件』(JACAR Ref.A04010006700).
- 『梶山弁理公使赴任之件』(JACAR Ref.B16080154500).
- 『小笠原島ヨリ北海道へ移動以后ニ於ケル動靜』 JACAR Ref.B03030202100.
- 『朝鮮国内情困難ノ趣聞泳駿並安寿両氏密話ノ件』(JACAR Ref.A04010006300).
- 『甲申政變과 金玉均』(閔泰瑗, 국제문화협회, 1947).
- 『古筠 金玉均正傳』(古筠金玉均正傳編纂委員會, 高麗書籍, 1984).
- 『古筠』 제1호-제3호(古筠會, 1935).
- 『고종실록』.
- 『公法便覽』.
-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2』[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 『琴乘洞文庫 소재 김옥균 관계 자료』(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金玉均』(葛生玄暉, 民友社, 1916).
- 『金玉均傳』上卷(古筠記念會, 慶應出版社, 1944).
- 『金玉均全集』(아세아문화사, 1979).
- 『內各司(關草)』[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 『大三輪長兵衛文書』(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 『러시아문서 번역집 II-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김종현 역, 선인, 2011).
-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박재만 역, 선인, 2013).
- 『陸奥宗光關係文書』(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 『萬國公法』.
-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中(伊藤博文編 金子堅太郎等校訂, 秘書類纂刊行會, 1936).
-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下(伊藤博文編 金子堅太郎等校訂, 秘書類纂刊行會, 1936).
- 『徐載弼博士自敘傳』(金道泰 편, 을유문화사, 1972).
-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
- 『外交彙報』 제161호(JACAR Ref.B13080616500).
- 『外交彙報』 제343호(JACAR Ref.B13080617100).
- 『袁世凱全集』(河南大學出版社, 2013).
- 『伊藤博文關係文書』8(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塙書房, 1980).
- 『伊藤博文文書』(伊藤博文文書研究會 監修, ゆまに書房, 2007).
- 『李鴻章全集』(安徽教育出版社, 2008).
- 『日本外交文書』.
- 『井上角五郎君略傳』(井上角五郎君功勞表彰會, 森印刷所, 1919).
- 『井上角五郎先生傳』(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編, 1943).

- 『井上角五郎自記年譜』(井上角五郎, 慶應大學福澤諭吉センター 소장).
『駐韓日本公使館記録』 3권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 1권 (JACAR Ref.B03030199200).
『漢城遁殘夢』(井上角五郎, 春陽堂, 1891).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總書』 19(金容九 編, 亞細亞文化社, 1995).
『해의사료총서 7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後は昔の記』(林董, 時事新報社, 1910).

2. 저서

-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琴秉洞, 『金玉均と日本：その滞日の軌跡』, 綠蔭書房, 1991.
閔泰瑗, 『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1947.
박은숙,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북스, 201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김옥균』(1964; 역사비평사 복간, 1990)
山辺健太郎, 『日本の韓國併合』, 太平出版社, 1966.
李光麟, 『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下, 朝鮮總督府, 1940.
조재곤,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쓰았다』, 푸른역사, 2005.

3. 논문

- 김영작, 『金玉均 暗殺事件과 韓·清·日 三國-既存 學說에 대한 批判的 再檢討-』,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 근대정치사의 쟁점』, 집문당, 1995.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金振九)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13, 2003.
김흥수, 『「갑신일록」의 진위에 대한 재고』, 『규장각』 48, 2016.
小林瑞乃, 『日清戰爭開戦前夜の思想狀況-金玉均暗殺事件をめぐる一考察』, 『靑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64, 2010.
趙景達, 『朝鮮における大國主義と小國主意の相克-初期開化派の思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1985.
_____, 『朝鮮近代のナショナリズムと東アジア-初期開化派の「萬國公法」觀を中心に-』, 『中國：社會と文化』 4, 1989.
조재곤, 『한말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崔書勉, 『金玉均 最後の 上海 메모』, 『월간중앙』 105, 1976. 12.
_____, 『金玉均, 上海最後のメモ』, 『アジア公論』 69, 1978.
河村一夫, 『李鴻章·李經方と金玉均との關係について』, 『朝鮮學報』 74, 1975.
韓哲昊,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 李啓弼의 일본·미국 유학과 활동』, 『東國史學』 37, 2002.

Kim Ok Gyun's Last Moment

Kim Heung Soo*

Kim Ok-gyun, who went to China at the invitation of Li Jingfang, Li Hongzhang's adopted son, was assassinated by Hong Jong-woo in Shanghai. There were several documents among Kim Ok-kyun's relics. These include a letter to Heungseon Daewon-gun, a brief memo showing the reform plan, and a list of Joseon officials who appear to be targets for internal reform. Using this document as a clu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urpose of Kim Ok-kyun's reform initiative and his trip to Shanghai just before the assassination.

Kim Ok-kyun, who defected to Japan after the failed political coup, dreamed of a political comeback by allied with Heungseon Daewon-gu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my's enemy comrade” while the enlightenment forces were destroyed. In an extension of these activities, Kim Ok-kyun seems to have met with Li Hongzhang to explain his plan to form a government with a renaming personnel, including Min Young-joon, in alliance with Daewon-gun, and to obtain Li Hongzhang's consent and support. Tragically, Kim Ok-kyun's death was used as an excuse for Japan's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and his political reform plan was realized while the Japanese occupied Gyeongbokgung Palace.

On the other hand, Kim Ok-kyun responded to Li Jing-fang's invitation because he resonated with his East Asian initiative. Li Jingfang emphasized

* Hongik Univ./Associate Prof.

that Qing Dynasty and Japan should work together to reform Joseon and make Joseon a neutral country to maintain peace in East Asia. Making Joseon a neutral country like Belgium and Switzerland has been Kim Ok-kyun's consistent foreign strategy since the Gapsin Coup. It is thought tha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Principle of harmony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ere the neutralization of Joseon guaranteed by the Qing Dynasty and Japan.

Key words: Kim Ok-kyun, Heungseon Daewon-gun, Li Hongzhang, Li Jingfang, neutral country